

『 식민도시에서 국제관광 기업도시로의 변화, 군산 』

지리교육과 2학년 최민지

1. 군산 개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지명	극점
동단	서수면 금암리 마포	동경 126° 55′
서단	옥도면 어청도리	동경 125° 58′
남단	옥도면 비안도리	북위 35° 44′
북단	나포면 나포리 원나포	북위 36° 3′

〈 군산시의 수리적 위치 〉

출처: 군산시청



〈 군산시의 위치 〉

출처: 네이버블로그

군산시는 금강의 왼쪽 끝에 있는데 넓은 호남평야를 뒤에 두고 있으며 서해안의 중심적 항구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보령시과 이웃하고 있으며 전주-익산-군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도시의 서쪽은 바다 및 섬들이 있고 남쪽과 동쪽은 평야와 나지막한 군산¹⁾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서울에서 231.5km, 부산에서 337.5 km, 광주에서 140.0km, 전주에서 47.9km 거리에 이르는 곳에 있으며, 호남평야를

배후지로 하는 서해안의 중심 항구도시이다.

2. 인문·자연환경

1) 지형

군산시 대부분 지역이 해발고도 50m 내외의 구릉이 산재한 넓은 충적평야이

1) 한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산

며, 100~200m의 낮은 산지가 일부 분포한다. 북동부인 나포면·서수면·성산면 등에 200m 내외의 산지가 분포하며, 그 외 남부와 서부 지역에 100m 내외의 산지가 있다. 금강과 만경강 하구 주변의 미성동·옥구읍·회현면·대야면·임피면에는 해발고도 50m 내외의 구릉이 산재하는 넓은 충적평야가 전개된다. 구릉지에는 배수가 양호한 적황색토가 덮여 있는데, 시가지 밖의 취락의 대부분은 이곳에 분포한다. 충적평야는 금강과 만경강 하구의 넓은 간척지로 대부분 1920년대, 1940년대의 농업개발에 의해 경지 화 하였다.

2) 기후



〈 군산시의 기후그래프 〉

출처: 군산통계연보

전라북도 서쪽에 위치한 군산은 남부 서해안형 기후로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여름에는 온난습윤하다. 연교차는 내륙지방보다 해안지방이 작으며, 도서지방은 더욱 작다. 연평균기온 12.6℃, 연강수량 1,201.4mm 내외, 1월 평균기온 -0.4℃ 내외, 8월 평균기온 25.7℃(평년값 기준)이다.

3) 인구

〈 군산시의 인구변화 〉

출처: 통계청

군산시의 인구는 1980년대 이후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계속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군산시 인구가 10여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인구증가와 함께 세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산시 인구증가의 이유는 대기업 유치 및 새만금 개발 등 각종 호재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준공되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군산인구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3. 새만금간척사업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 새만금 위성사진 〉

출처: 새만금사업단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요 사업구역은 군산 [비응도, 내초, 옥구, 옥서, 회현, 대야, 옥도(7개)], 김제 [광활, 죽산, 만경, 청하, 성덕, 부량, 진봉(7개)], 부안 [계화, 동진, 하서, 변산(4개)] 으로 사업기간은 방조제(1991~2009년)/내부개발(2009~2020년) 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굴곡진 100km의 해안선이 비응도~고군산군도~변산반도 사이를 연결하는 33km의 직선 방조제로 바뀌게 되어 그 방조제 안쪽으로 새로이 4만 100ha의 용지가 생김으로써 그만큼 국토가 확장된다. 이 면적은 전주시 면적의 두 배, 여의도의 약 140배에 이르는 것으로서 간척지에는 주택지구·상업지구·공업지구가 들어서고 인구 30만의 신도시가 생길 것으로 본다.

새만금사업을 통해 국토확장,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연간 10억 톤의 수자원 확보, 수해 상습지 해소, 육운 개선 및 종합 관광 권 형성 등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심각한 환경 문제 발생, 갯벌 파괴로 인한 어족자원이 고갈, 생태계 불균형으로 철새도래지 파괴 등의 환경에서의 부정적인 면이 많아 논란이 크다.

4. 군산시의 도시변화과정

1) 식민도시로서의 군산시

개항 당시 군산은 옥구현 북쪽 22리에 위치한 한촌으로 월명산 등 서부 구릉지와 토성산 등 동부 구릉지 사이의 충적평야와 간석지로 이루어졌으며, 해안과 하구의 저지대는 갈대밭이었고 취락지역은 구릉지에 위치했다. 그러나 1899년 개항과 함께 군산은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개항 초기부터 군산은 호남평



〈 1930년대 미곡반출 선적 광경 〉



〈 1920년대 영화동 거리 모습 〉

야의 수탈을 위해 개발되었다. 먼저 일본은 배후지의 넓은 평야를 점령하고 관리하기 위해 호남 일대에 대규모의 일본인 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후 19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산-전주 간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이 공사는 당시의 교통량이나 수요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장래의 본격적인 쌀 수탈을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대단위 공사가 군산-전주 간 철도공사(1912년)이다. 군산선 철도에 위치한 역의 소재지를 보면 이 또한 쌀 수탈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군산부가 자본주의적 상품 소비시장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게 된 것은 초기의 쌀 수탈을 위해 건설한 도로와 철도, 본래 발달한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의 수로를 통해 쉽게 상품이 유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군산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 동안 초기에는 식량수탈 기지로, 후기에는 자본주의 상품의 소비시장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은 개항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도시 중 하나였다. 일제로 개항 당시 588명에 불과했던 군산의 인구는 일제 말기인 1944년에 이르러서는 5만 8,000명으로 증가해 거의 1만 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2)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변화하는 군산시

해방 이후 군산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검토된 것은 1966년 건설부의 '군산-서해안 지역종합개발계획 보고서'가 최초였다. 이 보고서는 특정지역 지정을 위해 군산 및 충남 서해안 권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198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20년 장기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이 보고서에서는 서해안 일대의 농경지를 유지하고, 간척사업을 통해 항만과 농경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군산과 장항, 비인에 각각 간척을 통해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오늘날 서해안 개발계획의 원형을 제시했



〈 오늘날 군산시의 모습 〉

다. 군산 및 서해안 일대가 1960년대 이후의 기나긴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서해안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발표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아산만, 군산·장항, 광주·목포·광양으로 이루어진 3개소의 신산업지대 건설구상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식민지 지배기 이후에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회한의 도시로 남아있던

군산은 부활의 희망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금강 하굿둑의 완공으로 군산시는 충남의 장항, 서천과 연결되어 논산 강경 부역을 포함하는 금강 하류권의 형성, 군장산업기지개발, 섬들이 육지가 된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도약하려는 군산시의 위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변화, 군장산업단지

군장산업단지란 전라북도 군산과 충청남도 서천 장항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단지를 일컫는 말로써 서해안 개발전진기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93년 12월에 조성됐다. 군산자유무역지구 38만평, 군산 지방 산업단지 171만평, 군산국가산업단지 207만평 등이 조성돼 있으며 추가조성 된 군장국가산업단지 408만평을 포함하여 총 614만7000평에 달한다.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산업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개발됨으로써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관광, 생활권 등에 많은 발전을 가져와 투자 유망지로 급부상 하고 있다. 현재 군산 산업단지에는 140여 개 사가 입주 계약을 마쳤으며 자동차와 기계관련 업체가 85개사로 가장 많고, 이어 석유 화학 등의 업체가 56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영정 외 / 2006 /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공간, 경제, 문화 / 도서출판 한울
- 군산시 / 2008 / 군산통계연보(제 14회) / 군산시

〈 참고사이트 〉

- 군산시청 <http://www.gunsan.go.kr/>
- 군산사랑 <http://www.gunsansi.c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새만금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
- 군산시 경제산업정보시스템 <http://www.geis.kr/>
- 군산개항 100주년 자료실 <http://www.gunsan.go.kr/port100>

군산 근대 유적지

★ 우리는 왜 이곳에 왔을까?

군산은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식민항구도시이다. 일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근대도시의 경관을 살피고, 식민지 도시의 문화재적 가치와 항구도시로서의 군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일제 문화의 잔재와 우리 전통 문화의 혼재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교육과정의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을까?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

- 한국지리
 - 4단원 거주와 여가의 공간
 - ① 도시의 지역분화과정 및 내부구조를 파악하고, 토지이용의 유형과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II
 - ① 호남지방을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최근의 산업변화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

★ 어디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 전라남도 목포시 근대역사박물관 및 시가지
- 부산광역시 일대
- 베트남 하노이(Hanoi)
- 홍콩(Hongkong)과 마카오(Macao)